



이사벨라 큐, 10세,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



사랑의 병

저는 학교에서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담은 플라스틱병인 “사랑의 병”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도왔어요. 그 병에 우리는 비닐봉지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제품을 담아요. 가족들은 각자 사랑의 병을 만들었고, 그 병을 학교로 가져갔어요. 사랑의 병들은 플라스틱으로 벽돌을 만드는 기관으로 보내졌어요. 플라스틱 벽돌은 야외 벤치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을

때 사용할 수 있어요. 저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 제품을 매일 쓰고 있는지를 깨달았어요. 그건 실제로 환경에 문제가 돼요. 저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을 시작하고 싶었어요.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어요. 그래서 교회 분들에게도 도움을 부탁하기로 했어요. 저는 제 지도자와 와드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. 감독님은 저에게 모임에서

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?

그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하셨어요. 많은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어요. 몇 달 후에 우리는 사랑의 병을 100병도 넘게 모았어요!

이 프로젝트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. 병이 많이 모이면, 저는 가족들과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병을 수거하는 곳으로 가요. 우리가 그곳에 두고 오면, 병들은 건축 자재로 만들어질 거예요.

저는 이 프로젝트를 정말 좋아해요.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말로 도울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. 그리고 자연과 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데 도움이 돼요. 자연을 돌보는 것은 제가 구주를 따르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.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이기도 해서 좋아요.

시간을 내어 사랑의 병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. 하지만 저는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, 매일 작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느껴요. 저는 또 “큰” 일을 하려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어요.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이 변화에 동참하도록 도울 수 있어요. 저는 변화하고, 다른 사람을 돕고,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어요. ●

사진: 시메니 페로키



병으로 만든 새 모이통

빈 플라스틱병을 이용해서 새 모이통을 만들어 보세요!



1. 플라스틱병을 씻고 라벨을 제거해요. 그런 다음, 물기를 말리세요.
2. 어른에게 병 아래쪽에 작은 구멍 두 개를 뚫어 달라고 부탁하세요. 구멍으로 끈을 넣어 고리를 만들어 묶어요.
3. 뚜껑과 가까운 쪽에도 작은 구멍 두 개를 뚫어요. 구멍으로 막대기를 넣어서 새들이 쪼고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.
4. 양쪽 막대기 위로 5cm 길이의 얇은 구멍을 내세요. 이 구멍으로 새들이 씨앗을 먹을 수 있어요!
5. 손가락으로 먹이 구멍을 막고 다른 사람에게 새 모이를 부어 달라고 하세요.
6. 병뚜껑을 닫고 조심스럽게 병을 뒤집으세요. 나뭇가지에 끈으로 새 모이통을 묶으세요.